



섬 특성화 사업, 보령시 삼시도에서 시범 실시

보령시 삼시도는 거머머 해변, 진너머 해변 등 우수한 해변과 경관을 보유한 서해의 터줏대감입니다.

하지만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이로 인한 수산물 생산 불균형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으로써 경제 쇠퇴를 막을 수 있는 인구·경제·관광 활력 제고 방안이 필요했습니다. 이를 위해 한국섬진흥원은 2022년 6월 보령시와 위·수탁 업무 협약을 체결, 시범 사업의 뜻을 올렸습니다.

주민이 함께 세우는 마을발전계획

진흥원은 PM단 선정 직후, 주민 사전 설명회 및 섬 마을의 자원을 발굴·조사하는 한편, 전문 컨설팅단을 조직하여 마을발전계획 수립에 나섰습니다. 이를 위해 마을 활동가들과의 지속적인 인터뷰는 물론 전체 마을 주민이 참가하는 워크숍 및 커뮤니티 행사로 모두가 함께하는 특성화 사업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.



사진. 김혁준

마을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참여



2023년, 주민 주도적 실행 기반 마련

삼시도는 2021년 말 원산도 해저터널 개통 이후, 삼시도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객 증가를 보다 기대할 수 있는 섬입니다.

2023년 상반기에는 주민 수요에 맞춘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여, 분야별 컨설팅과 함께 섬 주민 중심의 사업추진으로, 주민 주도의 실행 기반 마련을 진행할 것입니다.